

## 오든의 초기시가 보여주는 추리적 측면과 그 의미: 「비밀 요원」을 중심으로

박 소 현

오든의 전기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타자로서의 관점은, 그의 시를 해석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기댈 만한 방법들 중 하나로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성 정체성, 좌익 사상, 타국으로의 귀화 등 소수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생애는 확실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자취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비평의 대상이 되기보다 전기적 접근이라는 받침대를 수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대부분의 비평사가 그러한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그러한 지배적 경향은 오든의 시 세계를 탐색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된 제약된 조건 하에서 내리는 필수적 선택의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즉 작품 자체만을 상대로 승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든적인”(Audenesque)이라는 형용사 역시, 오든의 시의 특성을 한 마디로 쉽게 정의하거나 추출해 내기 어렵다는 것을 대변한다.

오든 시의 난해성은 시의 논지가 제시하고 있는 내러티브가 그 이면에 암호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독자는 시의 내러티브가 확연한 알레고리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것에 대입해볼 코드표가 없는 상태에서 한 꺼풀 숨겨진 의미의 구조를 향해 계속적으로 달려 나가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결국 오든의 시의 의미 구조가 오든 자신이 “개인적인 성역의 구성과 가공”(the construction and elaboration of a private sacred world; Mendelson xiii)에서 재인용)이라 표현했던 특정한 지형 위에서만 밝힐 수 있는 것이라면, 오든의 전기를 토대로 시인의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추적하여 이러한 개인적 알레고리의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하는 기존의 시도는 타당한 것이다. 그 예로, 에드워드 멘델슨(Edward Mendelson)을 비롯한 오든 비평가들은 초기시 분석에서 당시의 오든이 심취해 있던 프로이트 정신분석학과 그에 대입되는 오든의 성 정체성 담론을 빼놓을 수 없는 토대로 삼는다. 물론 이러한 관점을 통해 작품 이해의 근거를 상당한 분량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인 개인의 전기적

혹은 사상적 고증을 통해서 건져내는 암호 풀이로는, 오든의 시에서 감지되는 추상성을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전기적 접근이라는 층위의 해독법으로 완결짓기에는 암호의 범위가 더 크게 열려 있으며, 따라서 여전히 존재하는 불투명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바로 오든을 “오든적”이라고 부르게 하는 난감함이라고 볼 수 있다.

진술의 뚜렷한 감각보다는, 진술되지 않은 것의 여운을 고취시키는 이러한 특성은 물론 오든의 시를 포함하여 많은 예술 작품이 갖는 자질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든에게 있어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암시된 내러티브의 적극성이다. 즉 진술하고 있는 것을 가리거나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어지는 진술 속에서 드문드문 나타나는 내러티브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그 내부에 또 다른 의미 구조 또는 지형도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 그 의미 구조를 구축하게 하는 욕망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암시와 반전의 중첩을 통해 전개되는 오든의 초기시는 추리 장르적인 측면을 표방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1928년 쓰여진 「비밀 요원」(“The Secret Agent”)<sup>1)</sup>은 이러한 암시적 속성을 가진 내러티브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적 전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속적인 전복과 반전을 통해 시의 흐름이 앞으로 리드되는 긴장감 있는 운동성을 보여준다.

그는 알아챘다, 통과점들의 제어가  
이 새 구역으로 이끄는 열쇠임을, 하지만 누가 그것을 얻을까?  
숙달된 스파이, 그는, 덧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위조 지침에 끌려, 낡은 수법들에 유혹 받은 채.

Control of the passes was, he saw, the key  
To this new district, but who would get it?  
He, the trained spy, had walked into the trap  
For a bogus guide, seduced by<sup>2)</sup> the old tricks. (1-4)

시의 도입부에서부터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의 흐름이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연 1행의 “통제”(Control)와 “통과점들”(passes)가 상호 교

- 1) 모든 시의 인용은 덴텔슨 편집의 *Collected Poems*(이하 CP)에서 발췌하였으며 판본상의 상이함 역시 CP를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 2) CP에서는 *seduced by*, *Norton Anthology of Modern and Contemporary Poetry*(이하 NAMC)에서는 “seduced with”으로 상이한 판본이 나타나며 의미상으로 “낡은 수법”(the old tricks)과 동격을 이루며 주격을 강조하는 NAMC 판본을 선호하지만 시 전문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판본 구분에 기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CP판본을 인용하였다.

차되는 아이디어들이다. "was,"와 "saw,"의 시각적 대칭 사이에서 시의 주인공인 "그"(he)가 등장하는데, 자연스럽게 독자는 이 "그"를 제목이 지시하는 "비밀 요원"에 대입하게 된다. "열쇠"(key)는 문을 열어 지나가게 하는 통과와 함께 공간의 봉인인 통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앞선 "통과점들의 제어"(Control of the passes)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대비되는 흐름의 교차와 통합을 제시하며, 발음상 "그"(he)와도 이어진다. 2행에서 시는 "열쇠"가 인도하는 "이 새 구역"(this new district)으로 전개된다. "새로운" 구역이 갖는 미지의 공간성에서 느껴지는 것은 1행의 제어 또는 완결의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워진, 앞서 제시된 흐름이 또 다시 역전된 상태이다. 짧은 두 행 사이에서 "was"와 "saw"의 두 동사는 내러티브를 수반하고 있는데, 즉 "그는 생각했다"로 나타난 비밀 요원의 관점과, "새로운 구역을 따내는" 임무의 내용이다. 그런데 2행 후반부에 나오는 "그러나 누가 그것을 얻으려나?"(but who would get it?)하는 질문에서, 독자는 앞서 시의 유일한 주체를 "그"로 상정했던 시도가 잘못 짚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어지는 시행들에서도, 시어의 의미들은 시계추처럼 두 가지 편을 계속해서 오가며 서로를 반전시킨다. 3행의 "숙달된 스파이"(the trained spy)와 4행의 "위조 지침"(a bogus guide)은 "숙달된," "지침"같은 시어에서 감지되는 일종의 투명성과 "스파이," "위조"같은 시어가 내포하는 불투명성이 서로 교차된 상태이며, 이처럼 형용사를 반대로 나누어 갖고 있는 듯한 시어들은 그 중첩된 결합으로 인해 전반적인 화자의 어조에 애매함을 더한다. 마찬가지로 "덫에 걸리는"(had caught by the trap) 것이 아니라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had walked into the trap)는 화자는 오든 특유의, 가치가 전도된 세계에서 온 것이다. 그가 비밀 요원이자 스파이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속내를 알 수 없는 겹겹의 애매함은—표면상으로는 이 첫 연이 그의 스파이 활동이 실패하고 있음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다시 한 번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즉 주인공의 실패 또한 사전에 의도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시는 스파이 활동이라는 내러티브 전개를 보여주며 그 이면에는 시가 가져다주고 있는 메시지—적절한 상징체계 또는 주인공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던져 주지만, 두 가지 대비되는 흐름의 교차에서 주인공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를 건질 수 있는 범위보다, 시가 제시하는 도약의 범위가 크다. 그러한 애매함이 팽배한 와중에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자 의심하게 되는 것은, 시의 공간을 경우의 수가 등장하는 상상의 영역을 영원히 지속되는 무한한 "새 구역"의 공간으로 확장하며, 시간의 흐름을 연상시키는 두 가지 측면의 반복적인 교차 역시 스파이라는

소재의 암호적인 성격을 증폭한다.

그린허스는 댐을 짓기에 그럴 듯한 경관을 지녔다  
쉬운 전력을 얻기에도, 다만 그들이 철도를 놓았더라면  
더 가까이 있는 역들까지 이어지도록. 그들은 그의 전보들을 무시했다:  
다리들은 지어지지 않았고 문제가 건너온다.

At Greenhearth was a fine sight for a dam  
And easy power, had they pushed the rail  
Some stations nearer. They ignored his wires.<sup>3)</sup>  
The bridges were unbuilt and trouble coming. (5-8)

계속해서 시어들은 의미상의 세세한 비틀림을 겪으며 진행된다. 반전의 교차 속도가 빠른 탓에 시인의 어조는 유머러스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2연에서 중요한 것은 “힘”(power), “철도”(rail)와 “전보”(wire), “다리”(bridges), “온다”(coming)가 보여주는 직선적이고 동적인 움직임과, “경관”(sight), “댐”(dam), “역”(stations)이 가지고 있는 정적인 대기 상태의 교차이다. 대기 상태의 이러한 점들은 연결의 움직임을 통해 이동성을 부여받고 통합된 회로망의 형성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무시했다”(ignored), “지어지지 않았다”(unbuilt) 등 차단을 겪고 있다. 2연의 시행들은, 주로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중첩된 반전의 형태를 보여줬던 1연과 비교했을 때, 직선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잠재적인 이동성의 측면이 더 강하며, 이렇게 직선과 정지, 그리고 차단의 효과가 교차하는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의 측면에서, 소위 모르스 부호의 전달과 같은 암호 체계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2연까지 살펴보고 난 결과를 보면, 각 연의 결말은 모두 초반에 제시된 연결 내지 통합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연의 최후에서 독자가 받아든 암호의 내용은 결국 “문제 발생”(trouble coming)이며, 이것이 비밀 요원의 전보라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실제적인 내용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거리의 음악은 자비로운 것처럼 보였다 이제  
사막에서 수주를 지새운 자에게는. 잠을  
어둠 속 도망치는 물에 의해 깨어난, 그는 종종

3) CP에서는 “They ignored his wires,” NAMC에서는 “They ignored his wires”로 구두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블 콜론(:)을 사용함으로써 이하 행들이 “전보를 무시한” 결과로서의 설명으로 받아들여지는 CP판본을 수용하고 있다.

밤이 데려오는 동료들 원망하곤 했다.  
이미 꿈꾼 적이 있었던 그것을. 물론, 그들은 쏘겠지,  
절대로 합류한 적이 없었던 둘을 너무도 쉽게 갈라놓으며.

The street music seemed gracious now to one  
For weeks up in the desert. Woken by water  
Running away in the dark, he often had  
Reproached the night for a companion  
Dreamed of already. They would shoot, of course,  
Parting easily two that<sup>4)</sup> were never joined. (9-14)

마지막 연의 흐름은 “어둠 속 도망치는 물”(water / Running away in the dark)이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점점 가속화된 이동성을 보여준다. 2연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좌표의 연결을 통해 회로망 구축에 실패한 그는, 아마 앞으로도 그러한 관계망이 지어질 리 없는 “사막”(desert)과도 같이 변해버린 “거리”(street)를 헤매 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며, “물”처럼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삶의 욕구로부터도 차단된 상태이다. 공동체가 부재하는 “사막”과, 인간 사회를 나타내는 “거리”의 장소가 서로의 간극을 뛰어넘어 한 공간에 비교 대상으로 중첩되는 것이나, “물”이나 “밤”이 “도망치거나” “꾸중을 듣는” 의인화된 인격체로 묘사되는 것, “이미 꿈속의 존재”와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은 “그”의 혼란과 광기를 보여주는 일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처럼 시인 역시 변장에 능한 “비밀 요원”의 어조로 시를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진술은 현실적이라기보다 추리적 측면을 의도하기 위한 가상의 영역으로 보일 수 있다.

충격적인 마지막 두 행은 지금껏 읽어왔던 시의 내러티브에 대한 전체 반전으로 나타난다. 즉 “합류한 바 없는 둘”(two that were never joined)은 “쉽사리 갈라놓아질”(Parting easily) 수 있으며 “(전보를 무시했던) 그들”의 “당연한” 총격의 대상이라고 말해질 때, 그가 비밀 요원으로서 속해 있었던 조직의 존재 여부나 그의 합류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즉 시 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추리적 측면을 충실하게 잡아내며 따라간 결과, 이 시에 내포된 암호가 그 발신자의 체계로부터도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밀 요원의 입장에서

4) CP에서는 인용된 대로 “Parting easily two that were never joined,” NAMC에서는 “Parting easily who were never joined”로 각각 상이한 판본이 나타난다. 시의 음성적 차원에서는 NAMC판본을 선호하나 연속되는 반전의 이항적인(dichotomous) 성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논의에서는 “two”로 이항적 특성을 강조하는 CP판본을 수용하고 있다.

는 자신이 어느 편인지 모르게 되고, 독자의 입장에서는 비밀 요원의 정보를 어느 범주에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게 되며, 이러한 분리와 차단은 결국 내러티브의 와해를 가져올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멘델슨은 오든의 초기시를 다루면서 주로 전기에 드러난 주변인들과의 당시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 알레고리를 파악하려 했으나, 이 시에 관해서는 “그것이 관여하는 구분은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통합체나 만족감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division it concerns is not only sexual: it is any separation from unity or satisfaction; 36)고 덧붙인다. 험프리 카펜터(Humphrey Carpenter) 역시 이 시를 캐릿(Carritt)과의 관계와 연결지으면서도, 이 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욕망과 비밀에 의거한 분리와 그 추상적 논의가 “그 이면에 있는 개인적 배경을 완전히 넘어선다”(entirely transcend the personal circumstances behind [it]; 77)고 평한다. 존 풀러(John Fuller)를 포함한 비평가들은 이 시를 욕망의 추구하고 억압을 다루는 심리학적 긴장감의 관점에서 종종 논하고 있다. 이처럼 전기적 관점을 주된 접근법으로 삼는 비평가들조차 보다 큰 범위 내에서 이 시의 추상적인 구도를 설명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 시가 전기적인 차원에서 설명되어지는 것 이상의 내용을 안고 있음을 보여 준다.

비슷한 반전의 움직임을 1929년에 쓰인 「절대 더 강하지 않게」(“Never Stronge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멘델슨은 이 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두 측면의 피할 수 없는 분리라는 점에서 이 시를 「비밀 요원」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37). 매 행이 바로 전 행의 의미를 뒤집어 가며 긴장감을 고조되지만, “또 다른 나, 또 다른 당신”(Another I, another you)의 “두 명씩 짝 맞추기”(pairing off in twos and twos)에는 실패한다. “안녕이라 하지만 돌아오는, 그것은 두려움이 / 바로 거기 있으므로”(Saying good-bye but coming back, for fear / Is over there) 하는 시행들에, 억압된 두려움의 회귀와 의식 구조를 스스로 진단하는 오든의 정신분석학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잘 대입된다. “분노의 중심은 위험을 벗어나므로”(And the centre of anger / Is out of danger) 두려움이 닿지 않는 곳인데,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 소용없는”(Each knowing what to do / But of no use) 나와 “또 다른 나”, 너와 “또 다른 너”의 두 쌍이 사실 한 쪽은 거울 속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현실적인 육체를 이끌고 동시에 이 중심점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933년에 쓰인 「두 번의 등반」(“Two Climbs”)은 두 번에 걸친 상징적 등반을 다루고 있는데, 멘델슨은 이를 개인의 내면 감정의 총족 과정과 육체 감각의 총

죽 과정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226). 홀로 고생하며 올랐던 첫 번째 등반보다, 파트너와 함께 올랐던 두 번째 등반이 “맹세처럼 쉬웠다”(easy as a vow)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두 번 다 “풍요로운 내부”(the rich interior)로 표현되는 궁극적인 만족의 체험에는 실패하며, 1연에서는 1인칭대명사의 형태로, 2연에서는 상대방의 눈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But it was eyes we looked at, not the view) 「절대 더 강하지 않게」에서 말한 자기 자신과의 짝 맞춤, 즉 유아론적인 자기 감각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의 등반」은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추리적 측면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 작품이며, 따라서 추리적 측면에서 보여지는 진행형의 의미 구현보다는 정신분석학적 대입이 더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두 편이 서로 겨루는 구도와, 시인이 실제로는 양쪽 모두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주는 인위적 결론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차후의 논의와 이어진다.

피터 포터(Peter Porter)는 오든의 불명료함과, 두서없이 느껴질 정도로 넓은 상징물의 도약 범위에서, 시인으로서 자신이 다루는 언어를 무책임하게 방임하는 측면이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모호성으로부터 암호와 같은 형식의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비밀 요원」과 같은 경우, 시의 원동력은 경쾌한 반전의 움직임이나 속도감에서 기인하며, 암시적인 진행은 호기심을 자극하여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반전을 기대하게 만든다. 즉 오든의 암호성은 언어의 방임이 아니라 극적인 추리 속에서 독자로 하여금 의도적인 지형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암호성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리처드 버조스(Richard R. Bozorth)는 오든이 이 시에서 “폭로와 은폐를 오가는 수사법으로 서정시의 진실성과 개방성을 포기한다”(abjures lyric sincerity and openness for a rhetoric that hovers between revelation and concealment)고 표현하며, 이 주장을 따를 경우 의도적인 암호 구조를 배열하는 오든의 방식은 버조스가 말한 “발화성과 함께 하는 그 자신의 놀이를 알레고리화하는 것”(allegorizing its own play with speakability)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암호성의 의미를 해독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 가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즐거움에서 찾아본다면 「비밀 요원」의 암호성이 유발시키는 것은 “독자의 알고자 하는 욕망과 어우러진 진행형의 놀이”(an ongoing play with the reader's desire to know)인 것이다.

그러므로 반전과 암시 속에 진행된 의미 추리가 끝난 상태에서는, 내러티브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 수수께끼의 제시와 그 해답 혹은 해체가 필요하다. 1936년

에 쓰인 「탐정 이야기」(“Detective Story”)에서는 “누가 자기 인생의 지도를 그리지 못하는가?”(Who cannot draw the map of his life...?) 하는 질문이 등장하는데, 이는 수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로, “계속해서 작별의 인영이라고 말하는”(says good-bye continually) 점 역시 「절대 더 강하지 않게」의 메아리처럼 들리며 화자를 포함하여 심리적 욕망과 억압 구조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기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중 하나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지역 사람들의 유죄 선고를 받고 처형당하는 내용이 전개된다. 이 시에서는 「비밀 요원」에서처럼 속도감 있는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1연은 일종의 단서들의 제시들로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문문의 수사법은 과연 이러한 단서들로 인한 추리가 진짜 범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도록, 견고한 사실에 기반을 두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의문을 제기한다. 오히려 2연에서는 “우리의 행복에 대한 진실”(The truth about our happiness)이 “협박과 회롱”(blackmail and philandering)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제시함으로써, 진실성의 이면에 존재하는 작위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

따라오는 것은 습성적인 것이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다.  
 특정한 상식과 직관 사이의 불화,  
 우리 앞 우연히 늘 그 자리에 있는  
 그 짜증스러운 비전문가인 그 직관.  
 모든 것은 계획대로 나아간다, 거짓과 자백을 털어놓으며,  
 진을하게 하는 최후의 추적, 처형에 이르기까지.

What follows is habitual. All goes to plan:  
 The feud between the local common sense  
 And intuition, that exasperating amateur  
 Who's always on the spot by chance before us;  
 All goes to plan, both lying and confession,  
 Down to the thrilling final chase, the kill. (16-21)

3연과 4연에서는 범인의 지목과 처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범인 대상이 “우리 앞 우연히 늘 그 자리에 있는 / 그 짜증스러운 비전문가”(that exasperating amateur / Who's always on the spot by chance before us)인 “직관”(intuition)에 의해 지목되었다는 점과,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간다”(All goes to plan)는 서술, 그리고 “거짓말과 자백”(both lying and confession)이 하나로 뭉쳐진 증언은

이 「처형」(the kill)의 과정이 절대로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추리 장르의 핵심은 범인의 색출에 있는 것 같지만, 오든의 표현에 따르면 범인의 지목은 오히려 '범인 만들기'에 가까울 정도로 자의적이며, 모두를 「두근거리고」(thrilling) 「우리 자신들의 미소」(our own smile)를 짓게 만드는 것은 최후의 추격과 처형 의식이다.

오든 자신이 「사람들이 왜 탐정 소설을 읽는가」에 대해 생각하며 썼다고 밝히는 「탐정 이야기」의 시적 논지는, 오든 시가 가지고 있는 암호성이나 추리적 측면의 자의성 인식과 도덕적인 관점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열쇠」적의 작품으로 쓰일 수 있다. 즉 「비밀 요원」이나 「청원」("Petition")과 같은 오든의 초기시는 준비 없이 난해하게 다가오지만, 시의 암호성과 함께 하는 암시와 반전의 역동성은 숨어 있는 의미 구조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적당한 단서들을 내어주며 추리의 영역으로 독자들을 이끈다. 오든의 전기에 기대어 현실적인 사료들의 분량을 충당할 수 있다면, 바르뜨적인 「텍스트의 유희」를 기반으로 하는 버조스의 논의를 따라 암호를 해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즐거운 경험을 가져다주며 오든 시에 내포된 적극적인 내러티브 생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절대 더 강하지 않게」와 「두 번의 등반」에서 보았듯 두 시에서 그려지고 있는 대립적 구도는 반전되고 중첩되는 두 가지 흐름 중에서 최후의 선택을 내릴 것을 강요한다. 즉 오든이 놓은 자의적인 암호 구조는 버조스가 지적했듯이 절대적인 「진실성과 개방성」을 버리도록 하며, 오든의 화자는 자신이 세워 둔 규칙에 의해 사실은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정해 놓은 절대성을 가장한 정답으로 인도되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처지에 빠진다. 이는 전통적인 추리 장르에서 범인이 누구인지 먼저 제시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는 후에는 반드시 범인을 지목하여 「죽여야」 하는 것처럼, 오든 시의 추리적 측면에 독특한 이중성과 도덕적 의미가 부과되는 지점이다.

「탐정 이야기」 4면에서 「그럼에도, 마지막 장에, 늘어붙는 의심」(Yet, on the last page, a lingering doubt)은, 사실은 범인으로 잘못 짚었는지도 모르는 피고인을 처형한 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석연찮은 감정이다. 이 감정은 오든이 스스로에게 혹은 독자들에게 던져준 두 가지 흐름의 대립에서, 의미의 추리 작업을 거쳐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 해결해 버리고 난 직후에 오든 혹은 독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감정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유명한 「자장가」("Lullaby")에서 「우리의 필멸의 세계로도 충분하다고 발견하는」(Find our mortal world enough) 직후, 수치심 속에 통과해 가야 할 「모욕의 밤들」(Nights of insult)을 떠올리는 화자나, 「어느 저녁 산보하니」("As I Walked Out One Evening")에서 「너의 뒤들

린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 너의 뒤틀린 마음으로” (“You shall love your crooked neighbour / With your crooked heart.”)라고 강하게 서술하는 화자의 어조에서는 인도주의적 타협점과 함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공동이 있다고 인식하는 어두운 자책감도 느껴지고 있다. 즉 자신들의 행복과 미소를 위해 자의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인 색출을 감행한 사람들 중 하나인 것처럼, 언제나 유죄인 시간 속에서 (“time is always guilty”) 오든 “우리의 행복의 손실을 위해, 행복 그 자체를 위해 / 누군가는 값을 치러야 한다” (Someone must pay for / Our loss of happiness, our happiness itself)고 ‘사실은 실패한’ 추리극에 대해서 자조한다.

이처럼 「비밀 요원」을 중심으로 한 오든 초기시의 추리적 측면은 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암시와 반전의 연속으로 진행되는 독특한 움직임은 보여주며, 암호성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시의 난해성과 불투명성은 적극적인 내러티브 색출의 가능성으로 바뀌 부여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의 입장을 새기기 위한 선택과 구조는 자의적이고 때로 일방적인 은폐와 회생을 수반하게 되며, 시를 쓰는 것이 “행복을 위해 값을 치르는” 것이라는 논리는 오든의 어조를 좀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에는 비밀이 밝혀진다. 언제나 최후의 장면에는 그래야만 하듯이,  
맛좋은 이야기는 친밀한 벗에게 건넬 만큼 무르익었다.

.....  
여기엔 언제나 악의 있는 비밀이 깃든다, 어떤 사적인 이유가.

At last the secret is out, as it always must come in the end,  
The delicious story is ripe to tell to the intimate friend.

.....  
There is always a wicked secret, a private reason for this.

(“Twelve Songs” VII)

### 참고문헌

#### PRIMARY WORKS

Auden, W. H. *Collected Poems*. Ed. Edward Mendelson. New York: Random House, 1976.

Ramazani, Jahan, et al., eds. *Norton Anthology of Modern and Contemporary Poetry*. 3rd ed. Vol. 1. New York: Norton, 2003.

SECONDARY WORKS

- Auden, W. H. *The Dyer's Hand, and Other Essays*. London: Faber and Faber, 1963.
- Bozorth, Richard. "But Who Would Get It?: Auden and the Codes of Poetry and Desire." *ELH* 62.3 (1995): 709-727.
- Carpenter, Humphrey. *W. H. Auden: A Biography*. Boston: Houghton Mifflin, 1981.
- Fuller, John. *A Reader's Guide to W. H. Auden*.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70.
- Hart, Jeffrey. "How Good Was Auden?" *New Criterion* 15(1997): 59.
- Hoggart, Richard. *Auden: An Introductory Essay*. London: Chatto & Windus, 1951.
- \_\_\_\_\_. *Writers and their Work: W. H. Auden*. London: Longman, 1977.
- Mendelson, Edward. *Early Auden*. Cambridge Harvard UP, 1983.
- Osborne, Charlds. *W. H. Auden: The Life of a Poet*. London: Papermac, 1982.
- Smith, Sta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W. H. Auden*. Cambridge: Cambridge UP, 2004.
- Spears, Monroe K. *Aude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Jersey: Prentice-Hall, 1964.

**Abstract**

## The Significance and Element of Detective Novel in Auden's Early Poetry: Focusing on "The Secret Agent"

Sohyun Park

The difficulty to understand W. H. Auden's early poetry comes from the obscuring quality of itself. The poet subtly suggests that there is a certain hidden rules of allegory to match his projected metaphors but his hints are not lightened enough. This "Audenesque" characteristic can be grasped as in the concept of code building technique. Even though the poem's allusive narrative seems to conceal or deny the definite subject or statement, it also contributes to create a set of active recognitions in which the possible structures or the map of meaning can be arranged by given clues. Thus Auden's early poetry can be read as adopting an aspect of detective story genre, since it tends to invite the readers to assume a hidden structure of meaning and to participate in disclosing its secrets. "The Secret Agent"(1928) and other early poems demonstrates this kind of poetic technique mostly in which the flow of syntax is lead forward by the successive turnovers and reverses, creating the poem's tensive movement with the possibility of suggestive narrative. The poem's driving force arises from the jaunty reverses and their speed effect, whose process with full of allusive secrets stimulates reader's curiosity to make expectations for the narrative's next reverse Auden's coding technique prompts his readers to make a hypothetical design of hidden allegories through a process of dynamic and dramatic inference. In the process of such investigation and decoding experiment, the abstruse and opaque trait can be converted as the active possibility of searching out a serial narrative of meanings. Yet the final structure, which is a persuasive product built up from this process, is still arbitrary. What eventually revealed through this meaning-hunting or code-breaking is more likely to be the

demonstration of Barthesian desire and pleasure of reading the text, rather than the definite answer to solve the poem's problem.

*Keywords* W. H. Auden, Auden's early poetry, Auden's coding technique, "The Secret Agent," "The Detective Story."